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이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감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림중학교 학생들이 김명선 대표의 강의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려운 듯 익숙한... 클래식과 친해져 볼까

음악감상실 '다락' 해설이 있는 청소년 클래식 강좌

모든 학교 대상 무료 운영... 회사 단체 감상회도 진행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로 꼽히는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무대는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다. 마음을 흔드는 굵직한 목소리도 감동적이지만 노래를 하는 그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키는 132cm 불과하고, 손가락, 팔, 다리가 기형인 그가 부르는 노래는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 크바스토프가 부르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중 '보리수'가 울려 퍼졌다. 이날 이곳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광주 윤림중학교 2학년 학생 70여명. 학생들은 다락 김명선 대표가 진행하는 특별 영상프로그램을 감상하며 클래식과 친해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뒀다.

이날 소개된 음악가와 감상한 작품은 모두 5곡. 클래식 음악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첫곡으로 감상한 '오 솔레미오'를 들려준 이는 이탈리아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세계 3대 성악가로 꼽히는 그는 백혈병을 이겨내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간 성악가다. 그밖에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막심 트라비자의 '사라방드' 연주자 이어졌다.

사실, 2시간여 동안 클래식을 듣고 강의를 듣는 건 중 2학생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이날 역시 70여명의 학생 모두가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감상했던 건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루해 하며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라얀이 연주하는 '신세계' 4악장이 연주될 때는 다들 귀를 쫓긋 세웠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곡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은 지루하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다.

현재 일반인들을 위한 클래식 강좌와 하우스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다락'을 운영하는 김대표가 지난해 감상실 문을 열며 가장 중점을 둔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강좌였다.

클래식 저변화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이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윤림중학교 전교생은 4회에 걸쳐 클래식영상감상회에 참여한다. 얼마전에는 화순중학교 학생들이 다녀갔다.

강좌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항상 열려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또 학교측에

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맞춤형 감상회'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 김미연씨는 "좋은 음악을 듣고 음악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이런 강의를 처음 듣다보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 감상 태도 등도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또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익숙한 레퍼토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일반 회사에서 특별 감상회를 요구하는 일도 잦아졌다. 광주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전력 광주전 남지부 등의 회사 직원들이 다녀갔고, 또 광주가정법원 보호소년들이 감상실을 방문, 클래식 강의를 듣기도 했다.

그밖에 광주 지역 뿐 아니라 전주 등 타 지역 클래식 팬들의 '다락'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명재 전주그린치과원장이 설명에 나선 '말라 특별 감상회'가 열렸으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음악 칼럼니스트 황진규씨도 다락에서 감상회를 진행했다.

김명선 대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강의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락을 찾아 클래식과 조금이라도 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4080.

http://cafe.daum.net/darakclassic/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4일~10월1일 예술길 17-7번지 빈집서 '반하다'전
젊은작가 8명, 신선함 가득 살아있는 전시 보여준다

비엔날레가 이어준 인연 '비엔나쏘세지클럽'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만난 지역 젊은 작가들이 '비엔나쏘세지클럽'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전시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의 우수한 젊고 참신한 신진 작가들을 발굴, 키워내는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엔날레가 처음 추진한 '포트폴리오 공모전 35'를 통해 의기투합한 젊은 작가들의 전시라는 점에서도.

'포트폴리오 공모전 35'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9차례의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 비엔날레 메인 전시에 참여토록 한 최초의 공모전. 조현택·최미연씨는 이 공모를 통해 참여작가로 선정, 비엔날레 전시관에 각각 '젊은이의 양지', '나만의 도시' 등의 작품을 전시중이다.

조현택·최미연씨를 비롯, 이세현·오민정·박현정·박세희·무비·김사라 등 8명의 젊은 작가들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반하다'라는 주제로 그룹전을 기획, 선보인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마음이 출렁 것같이 쏠린다', '반대가 되다', '거스르다, 어기다'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주제에 어울릴만한 회화·사진·영상·설치 작품 등을 내놓는다면, 전시 형태도 익숙한 미술관 전시와 사뭇 달라 신선함이 가득하다.

우선, 기존 전시관 대신, 작가들이 발품을 팔며 광주시 동구 공동 오랫동안 방치된 빈

집을 전시관으로 선정했다.

지금껏 보여져온 미술관의 그룹전 형식을 탈피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귀신이 나올 듯한 집을 그럴듯한 전시 공간으로 직접 꾸렸고, 1층과 2층만 다락에 작품을 설치했다.

전시 기간 중에도 남은 공간을 새로운 작품 등으로 채워넣는 '살아있는' 전시를 보여 주겠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조현택씨는 "형식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과 미완성의 상태까지 포함한 열린 문화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면서 "관람객들과 함께 '테이블 토크'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일회성 이벤트 형식의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 작업 방식에서 벗어난 틀과 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관람객들과 재미있게 풀어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국내 젊은 작가들을 현대미술 간판 작가로 성장시키는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 작가들에게 거는 관심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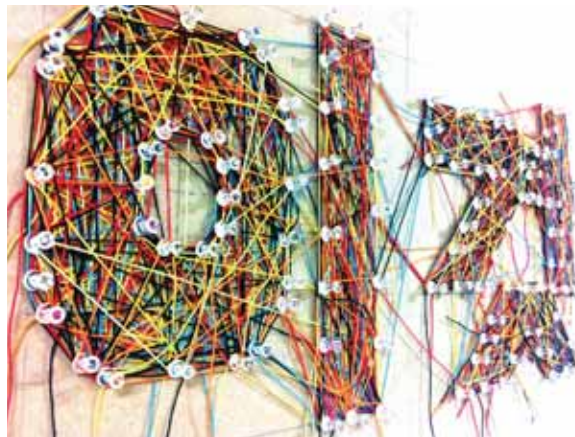
지역 문화계에서는 비엔날레가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작품성 좋고 전망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현정 작 '월하정'



무비 작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KBS LP음반 광주문화재단에 기증

1만2000점... 문화예술교육센터에 'LP음악감상실'

LP(long play)음반 1만2000장을 광주문화재단이 보유하게 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과 KBS 광주방송총국(총국장 백운기)은 12일 오후 3시 사직공원 내 사직공공예술작품 '스텝'에서 KBS가 보유중인 LP음반 기증식을 갖는다.

KBS광주방송총국은 이전에 사용하던 팝송·재즈·클래식·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LP음반 1만2000장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DJ가 기증음반을 소개하는 '추억을 나르는 음악카페', 토크쇼 공연 등도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사직공원 입구에 위치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층에 'LP음악감상실'을 마련, 시민들이 차 한잔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계절에 맞는 LP음악회 등도 계획중이다. 문의 062-670-74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의 유령' 기네스북 등재

브로드웨이 1만회 최장기 공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으로 월드 기네스북에 정식 등재됐다고 설앤컴퍼니가 11일 전했다.

'월드 기네스북 2013년 에디션'에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기 공연으로 2012년 2월 마제스틱 극장에서 1만회 공연 기록"이라고 실리게 된다.

1988년 1월 26일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린 '오페라의 유령'은 2006년 1월 6일 7486회 공연을 기록하며 '캣츠'를 제치고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을 세웠으며 브로드웨이에서 18년 이상 공연한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 단 한 편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평문 고객제-
[맥주 소 1병] 맥1
[와인 소 1병] 맥1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 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